

한라시론



유 동 형
진로·취업컨설팅 편찬집 대표

환상적인 팀워크

환상적인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가지는 팀원들이 동의하는 지향점, 주도권, 이익분배이다. 사회적기업 팀빌딩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1년여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함께 일하는 직원, 즉 종업원들의 고용과 수익의 극대화이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능력급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모두 배분한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지인 공리

주의보다는 개인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 파이를 안정적인 수준까지 키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몫을 기여도에 따라서 요구할 경우가 많았다. 팀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려면 궁극적인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 같이 움직이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면 결국에는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헤어지게 된다. 둘째는 주도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한다. 일할 때도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고 싶어한다. 혼자 움직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일 때는 팀이 움직이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 팀 내부에서 주도권을 서로 가지려고 할 경우, 이 또한 큰 갈등이 있다. 서로 원활하게 협의해 적임자를 정해서 팀이 운영된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누

군가 팀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매우 큰 갈등이 생긴다. 사담 머리가 두개이면 기형이듯이, 팀도 리더가 둘이면 이 또한 기형이다. 머리가 둘이면 소모적인 내분만 초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많은 팀이 깨진다. 하지만 몇 명이라도 마음을 맞추어서 손발을 맞춘다면 남은 자들은 환상적인 팀이 될 수 있다. 리더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각자 역할이 정해지고 일처리가 이루어지며,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수시로 의논이 되어지며, 다른 팀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기때문에 분업과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발적으로 일하기때문에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좋은 성과도 내게 된다. 내부갈등이 없고, 팀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좋은 생산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이 말을 꺼내기 좀 어려워하

는 부분인데 바로 이익분배, 돈에 대한 배분 문제다. 돈에 대해서 욕심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지향점, 주도권에 대한 불만이 없어도 배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팀을 떠나게 된다. 생활비 기준인 연공급, 능력기준 직능급, 일 기준 직무급, 성과중심 성과급 등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팀원 개개인이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과, 돈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배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정식의제로 올려서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잘해진 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임금을 평등하게 배분하고,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동일한 지향점, 합의된 주도권 부여,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때, 환상적인 드림팀이 만들어진다.

사설

5년 연속 '최하' 안전지수, 개선의지 없다

제주도가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등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10일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5년 연속 최하위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질화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제주도는 2015년 도입 이래 매년 범죄와 생활안전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받아왔습니다. 5년 동안 안전지수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뒷전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하등급으로 분류된 이유를 밝힌데서도 드러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건수가 인구

1만 명 당 123.8건으로 전국 평균가에서 5년 연속 최하등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10일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5년 연속 최하위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질화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악화는 한해 15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유입 등 환경 변화에 제때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큼니다.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인력과 시설확충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 차원에서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10월 "2020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짐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제2공항과 총선



오 은 지
정치부 차장
ejoh@halla.com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비 등이 포함된 내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는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읽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집행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조건이 달린만큼 정부가 도민의견 수렴없이 기본설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읽히거나,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 사실상 국회의 용인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내년 예산안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두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정의 관광 속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실상의 활동비 확보를 두고 도와 의회의 갈등이 격화될 분위기다. 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용역비 3억원)'가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회가 예산안 증액 조정을 통한 특위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쟁점이 바뀐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총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써 '제2공항 건설'은 선거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예비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유보 등 입장 표명도 나오고 있다. 제2공항과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총선이 제2공항의 갈등 해소로 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in

"도민의견 적극 수용 위해 노력할 계획"

JDC 자체감사 결과 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0일 자체 감사결과 업무처리 소홀 자에 대한 조치와 적극 업무처리로 절차 개선과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자평. JDC는 이날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와 '취업규칙 위반 특검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내 잘못된 사례를 가려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 JDC 감사실 관계자는 "도민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다짐. 조상윤기자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 제주시의 한 직원은 "사무실이 비좁고 낡아서 민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은 덜게 됐다"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본관 건물 활용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제2공항 특위 돕진 못할망정 발목잡나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2공항 특위가 본격 가동되자마자 발목이 잡히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바로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제2공항 특위 활동 예산이 거부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달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3억원 규모의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안'을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2공항 특위 예산 확보가 무산된 것입니다. 위원들은 국책사업인 제2공항 갈등해소 업무를 도의회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

한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의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제2공항 특위 문제로 왜 이렇게 마찰이 계속 빚어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가 공식 구성됐지만 이로 인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책사업(제주해군기지)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갈등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2공항 특위가 갈등 해결을 위한 차선책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심의 결정은 아쉽습니다. 원 지사도 갈등 해결에 나선 도의회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마치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 고
김택수 아버지 김해김공 성찬 (前 초등학교장·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8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3일(금)
▶발인일시: 2019년 12월 14일(토)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제주시 광령리 선영
부인 홍정자
아들 김택수 며느리 이은연
딸 김효정 사위 김만식
효숙 김흥수
효진 정정욱
※ 연락처 : 김택수 010-9335-5525 김효정 010-3696-8740

부 고
박지성(에스텍시스템) 아버지 밀양박공 처형(민간건축사무소 소장·향년 60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11일 07시 0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3일(금)
▶발인일시: 2019년 12월 14일(토)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8분향실
▶장 차: 해안동 가족선영
어머니 이여매
아들 박지성
딸 박유빈
※ 연락처 : 박지성 010-5150-6355 박유빈 010-4333-635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군보 (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부인 김순이(향년)
딸 김계월(향년) 사위 고복수
순월(향년) 김경택(배우)
선월(향년) 이호빈(배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전주이공 군형 (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아들 이상엽 며느리 강문화
상철 상의 강경화
딸 이영림 사위 이동식
연희 배희경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P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